

대한민국 외교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김 승 호*

I. 대한민국의 외교

1. 대한민국 외교의 어제

한국외교는 유사 이래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삼국시대 평가할만한 방문외교 성과를 발휘하였던 무열왕, 김춘추와 고려시대 서희의 협상외교의 출중한 예를 보여주었으나, 한국외교는 중국의 중화 체제에 복속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치열한 피압박상태에서 군신의 예와 조공무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청일전쟁 이후야 중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이후 서구근대국가들과 신흥 일본의 세력팽창으로, 한반도는 열강세력권의 격전장이 되었다.

1876년 조선은 자의에 반하여 일본과 강화조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차례로 문호를 개방하고 외교관계를 체결하기 시작하였다.

1885년에는 영국이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을 군사적 전략적으로 사전에 예방

한다는 제국주의적 발상으로, 한국의 남쪽에 위치한 거문도(port Hamilton)섬을 22개월간 불법 점령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자국의 영토가 불법 점령당했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청국의 통보에 의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된 조선은 영국에게 퇴거를 요청할 뿐이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이민족의 무력 침략을 받고도 왕조가 멸망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침략군에 상당기간 저항했던 당시의 군주가 교체된 일도 없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의 거란침입과 몽골침입, 조선왕조 시대의 청나라 침입 등이 그 예이다.

미얀마 국경에서 150km 떨어진 해발 1,900m 고지인 중국 윈남성 서부에 있는 대리국(大理國, 937~1254년)은 문물이 발전했으나 몽골의 쿠빌라이 칸에 의해 정복된 후 명나라 때 중국에 합병되었다.

중국 학계에서는 명(明)정부가 외교정로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한 고려-명의 국경은 철령(鐵嶺)을 양국의 분계선으로 한다는 것으로서 철령이북은 명에 속한

* 전주 모로코대사, 연세대 특별초빙교수

** 2009. 9. 24 전남대학교 및 2009. 11. 25 충남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강 내용(요약)임.

다고 본다. 명은 고려가 강점한 “중국영토의 관할권을 승인하지 않았으며, 고려가 강점한 중국영토를 귀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므로 고려를 이은 조선이 명의 강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한 것이 되는 것이다.”¹⁾

중국은 2009년 4월 만리장성(동단은 허베이성, 河北省 진황다오시의 산해관, 서단은 간쑤성(甘肅省) 가옥관) 길이가 종전 6,300km보다 훨씬 더 긴 8,851.8km라고 발표하고, 만리장성 동단을 압록강 하구인 랴오닝성(遼寧省)단둥시 호산이라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역사지도집”은 만리장성 동단을 한반도 내륙으로 그려 놓았다.²⁾

한국학자들의 대중 학술외교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외국에 의해서라도 정복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한국인의 우수한 정체성과 우리선조들의 탁월한 외교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유지될 수 있었다. 외교를 중시하였다는 사실은 고려 말에 설치되어 조선조 500여 년간 계속 유지돼 온 사역원의 역관(외교통역) 양성제도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지배계급인 양반관료들은 내치중심의 국정을 담당하였고, 이방인과의 교섭이나 접촉은 주로 중인계급에 맡겨 외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였다.

최근의 한국의 외교를 시대별로 살펴보면, 1948년과 1950년 사이의 건국외교기간, 1950년과 1960년의 국난극복외교, 1961년과 1979년 간의 국력신장외교, 1980년~1991년 냉전종말기의 외교,

1991년 유엔가입 이후 전 지구적외교 확대로 유엔에 가입한지 5년 만에 한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일차적 책임기관인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1996~1997년)으로 활동하였고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유엔사무총장 진출을 성사시켰다.

2. 대한민국 외교의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외교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진하고, 한·미 전략동맹 기반을 마련하며, 주변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구축한다.

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외교

신아시아 협력외교,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한국-아랍소사이터티 창립, 한국-아프리카포럼, 2008년도) 지역외교를 심화 발전시키며, 지역간 외교(Inter-regional)로써 16차 APEC정상회의(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2008년 11월 22일~23일 페루 리마 개최), 동남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협력대화(ACD), 7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에 적극 참여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외교

정부는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완성을 위해 한·미FTA비준을 준비중이며, 한·EU FTA협정 타결을 위한 ‘합의의

를'을 마련하였다. 또 한·일, 한·중, 한·MERCOSUR, 한·러 FTA 여건조성 노력을 계속중이고, 한·인도 CEPA 협상은 타결되었다. 기 체결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FTA이행과 한·ASEAN FTA이행(상품, 서비스)효과 극대화를 기하고 있다.

에너지협력벨트 구축을 위해, 중동국가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우호협력강화를 이루었다.

범세계적 환경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국가 브랜드로 제시하고,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하였다.

통상투자진흥 외교를 위하여 한국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준비를 마린 중이다.

라. 국제사회 내 역할과 위상제고를 위한 외교

한국은 2009년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정식 등장함으로써 “선진국 중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은 DAC 회원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신분을 바꾸는 나라다.

1945년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선진국대열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이제 세계 제 13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주효했지만 그 과정에서 해외로부터 막대한 원조가 없

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1945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받은 해외원조는 127억 달러, 현재 가치로는 약600억 달러(70조원)에 달한다. 이제 그 빚을 본격적으로 갚을 때가 된 것이다.

2008년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대비 0.09%로 약8억 달러 수준이다. 정부는 DAC가입을 계기로 그 규모를 2015년까지 0.25%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략 연간 30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절대 수치로는 대단히 빠르게 늘어나는 것이지만 여전히 2007년 기준 북유럽 국가들의 0.9% 수준에 불과하고 DAC 회원국 평균치인 0.3%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에서 선진국이 된 경험을 살려 효율적인 개발 노하우(know-how)를 원조수혜국들에 전수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DAC의 에크하르트 도이처(Eckhard Deutscher)의장은 한국의 DAC 가입으로 “국제사회에서 책임이 커지는 동시에 위상이 높아진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 물론 인도주의적 차원의 가입이지만 경제적 측면에서 얻는 부문도 결코 작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이 커지고 이로 인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함께 확산되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평했다.

마. G20 정상회의 참여와 글로벌 코리아
제4차 정상회의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고, 제5차 G20 정상회의는 한

국에서 열린다. 제6차 G20 정상회의는 2011년 프랑스에서 개최토록 합의하였다.

보통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회원국 이외에 다른 초청국 정상들과 UN,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의 대표들도 참석, 30여 명의 국가수반급 인사들이 동시에 모이게 된다. 2010년은 한국이 G20의장국으로서 제4, 5차 정상회의의 의제 및 발표, 토론자 선정 등을 주도적으로 협의·조정하게 된다.

II. UN 등 국제기구와 국제공무원

국제기구는 설립헌장이라고 불리는 국제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간 조직체로서, 기본법과 고유기관 및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설립헌장상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활동한다.

국제기구의 대표는 유엔이다. 유엔과 그 산하에는 다수의 전문기구들이 존재한다. 유엔에는 세 가지 차원의 기구가 있다. 첫째 유엔본부(뉴욕)와 본부기구(제네바, 비엔나, 나이로비 등지) 및 각 대륙별 지역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가 있으며 사무총장이 지휘한다.

둘째는 유엔총회에 의해 설립된 유엔의 하부기관인 프로그램과 기금(Programmes & Funds)이다.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유엔고등난민판무관(UHCR), 세계식량계획(WFP), 유엔환경계획(UNEP) 등이 이에 해당되며 유엔사무총장이 최고 책임자를 임명하지만 독립적으로 일한다.

세 번째 카테고리인 전문기구는 유엔

과 협정을 맺고 제휴, 협력하며,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간 국제기구를 말한다. 각국 정부 간의 협정에 의해 설치되고, 유엔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보건, 기타 연관된 분야에서 특정한 목적과 임무를 수행한다. 유엔명칭은 들어 있지만 업무적으로 유엔사무총장과 거의 관계가 없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노동기구(ILO),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은행그룹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국제공무원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계약형태는 P레벨의 전문직이 전체 직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일반직(GS; General Service), 계약직 컨설턴트(SSA; Special Service Agreement), P상당과 GS상당레벨이 있는 한정기간임용(ALD; Appointment for Limited Duration), 현지근무직원(FS; Field Service), 파견직원 등 다양한 종류의 직원 등이 있다.

유엔직원은 직무의 내용에 의해 전문직 직원, 필드전문가, 일반사무직 직원 등 세 종류가 있다.

가. 전문직 직원(professional staff)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전문직 직원은 사무국의 중심으로서 관리,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살려, 국제기구의 중추로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다. 사무관급인 P1과 국장급인 P5, 국장급인 D-1과 D-2계급이 있다

나. 필드전문가, 컨설턴트

기술전문직원은 필드(field)전문가, 특정기술을 가진 전문가로 기술적 지도와 조언을 실시하는 프로젝트 베이스에 주로 단기간 고용된다. 국제기구에서 단기간의 직원채용은 특별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단기간에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채용한다.

다. 일반 사무직 직원

일반사무직 직원은 각기구의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주로 현지에서 채용된다. 업무범위는 자세한 지침에 기초한 단순하고 일상적 일부터 전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이고 복잡한 일까지 다양하다.

2. 국제공무원의 필요조건

가. 어학능력

국제기구의 직무는 주로 영어로 행해진다. 근무지에 따라 영어이외에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어학능력이란 수준 높은 “언어운용능력”을 말하는데 원어민이 나누는 언어환경 속에서 효과적 문서를 작성할 능력(Drafting ability)이 특히 강조된다.

이 밖에도 타인이 작성한 문서를 첨삭할 수 있는지,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효과적 프리젠테이션이나 소통을 할 수 있는지 등이 주요한 포인트이다.

나. 제2외국어의 중요성

국제기구근무를 원한다면 학위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소유해야 한다. 특히 제2외국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유엔사무국에서는 영어나 프랑스어가 상용어(실무언어, working language)이지만, 실질적으로 영어가 업무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서조차 영어가 기본이다. 규모가 큰 회의에서는 거의 영어가 중심이다.

일상생활에서는 프랑스어를 할 수 있어야 세련된 세계가 펼쳐진다. 파리 유네스코에서 부내회의를 할 경우에는 그날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날의 사용언어가 정해진다. 영어로 회의를 시작했지만, 참가자 중 어떤 사람이 불어로 진행하자고 건의하고 다른 이들이 모두 동의를 하면 회의언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혼자만 불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분위기가 상당히 어색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국제기구 직원이라면 타 출신자들도 불어를 당연히 구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프랑스어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영어로 발언해도 괜찮지만 불리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중남미에서는 거의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어 구사가 필수적이다. 서부아프리카에서는 거의 불어를 사용한다. 어학은 소통의 도구이지만 무기로도 사용된다.

대부분의 유엔공식 행사는 영어로 치러지지만 행사 후 열리는 파티에서 유럽인들은 영어보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많은 정보와 의사결정이 이 같은 비공식 파티에서 오가기 때문에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유엔 공식 언어를 하나 둘쯤 더 구사할 수 있으면 상당히 유리하다.

반기문 외무장관이 유엔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그 바쁜 일정에도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모습은 유엔진출을 앞둔 한국 청년들에게 국제무대의 프랑스어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국제기구에 근무하면서 외국어를 잘하면 인센티브(salary increment)를 받을 수 있다. 유엔공용어 6개중 2개의 공용어 수준이 일정한 수준 이상인 직원들은 언어수당(language allowance)대상자가 되어 10개월에 한 호봉(step)이 올라간다. 일부 국제기구는 이 규정을 일반직에만 적용한다. 유니세프에서도 일반직 직원에만 인센티브가 있다.

다. 학위와 경력

유엔에서 P급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채용분야와 관련된 높은 수준의 학위(advanced university degree)와 몇 년간의 전문분야 경력을 요구한다.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 석사학위를 가져야 한다. 높은 직급으로 계속 승진하려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저명대학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석사학위가 없으면 국제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오해를 하면 안 된다. 국제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가 유리한 직위가 있으며, 석사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위도 있다. 석사학위는 그에 상응하는 직장경력이 있으면 필수 요건이 아닌 직책도 많다.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 국제기구 초급전문가)는 주로 행정직이며 대학원에서 경제, 개발, 법률 등을 전공한 사람이 많지만, 직장에 따라서는 공학, 의학, 의학 관계자도 필요하다. 일반적으

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스템 엔지니어, 간호사, 자동차 정비 등과 같은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도 유엔에서 많이 일하고 있다.

국제기구에 진출할 때에는 학부 전공보다 대학원 전공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학부의 전공을 대학원에서 바꾸는 경우는 아주 흔하다. 일반적으로 석·박사 전공은 취업과 직결되는 편이니까 학부때 보다는 훨씬 더 실용적인 전공을 선택한다.

국적을 불문하고 JPO시험이나 유엔사무국의 경쟁시험 합격자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지원자격이 학사출신 이상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은 직장경력이 많은 사람을 요구한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JPO 시험규정도 학사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합격자는 대부분 석사 이상이다.

대학원을 수료하지 않아도 국제협력 업무는 할 수 있지만, 기회가 있으면 개발경제, 국제·정치, 공중보건 등 자신의 관심분야의 대학원에 진학함이 바람직하다.

라. 전문지식과 경험

유엔진출에 공통으로 요구되는 능력은 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다.

김학수 ESCAP전 사무총장은 “언어능력을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해당업무분야의 전문지식과 능력이다”라고 말한다. 그는 공개채용에서 한국인들이 타국인에게 뒤지는 분야가 바로 전문성이라고 지적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한국인 송상현 재판장

은 “국제기구에 지원했다 떨어진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언어장벽을 이야기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ICC에서는 70여 개 나라 출신들이 일하는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영어나 불어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유엔과 국제기구에서 가장 넓게 사용되는 말은 “Broken English”라는 농담도 있다. 유엔 공용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국가출신의 직원들은 완벽한 영·불어를 구사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듯이 보인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기 때문이다. 송 재판장은 한국인 지원자들의 낙방 사유는 대부분 전문분야 실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에 비해 다소 높은 지위에 지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 준비부족도 문제란다. 해당 국제기구 홈페이지만 잘 살펴봐도 얻을 수 있는 정보조차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기업체에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얻은 전문성도 국제기구에서 일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

3. 국제기구 취업관문

가. 첫 대규모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2008년 5월 15일)

연세대는 외교통상부, 유엔개발계획(UNDP)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연세대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전부터 오후 늦게 까지, 유엔관련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Job Fair for Career Development in the UN Systems)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유엔관련 16개 국제기구에서 23명의 인사담당자가 나와 참석자들을 상대로 각 기구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자리로 이처럼 여러 국제기구가 함께 설명회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개회식에 참석한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였다.

2007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은 모두 41개 국제기구에 305명이 진출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가입 직후인 1992년에 비해 두배로 증가한 것이다.

나. 제2회 국제기구 진출설명회(2009년 6월 23일)

외교통상부는 유엔사무국, 유엔아동기금(UNICEF) 및 UNDP의 인사담당 간부들을 초청하여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기구진출 설명회를 두 시간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국 100여 개 대학교의 학생들을 포함하여 총 1,200여 명이 참가하여 우리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에게 취업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엔에서 선호하는 성과위주(achievement-oriented) 영문이력서 작성법과 역량위주(competency based) 채용면접 준비방법 등에 관한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2009년 6월 현재 유엔사무국에 진출한 우리국민은 총 330여 명이며 외교통

상부는 국제기구 초급전문가(JPO) 선발 인원 증원, 유엔국별 경쟁시험(NCRE) 유치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설명회 동영상 등 관련 자료는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채용정보 홈페이지(www.UNrecruit.go.kr)와 유엔과(☎02-2100-7238, email:unrecruit@mofat.go.kr) 참조 바란다.

다. OECD, 세계은행 등 이례적 합동 채용 설명회

2009년 10월 30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제1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에 학생,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금융계 직장인 등 각양각색의 500여 명이 모였다. 국내에서 처음 열린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때문이었다.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꺼번에 한국 인재들을 뽑는 자리였다. 이렇게 국제금융기구가 한꺼번에 모여 채용설명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세계적으로 드문 케이스이다.

오전 7개 국제기구 인사 담당자들이 “국제금융기구의 인사정책 및 협력방안”이란 주제로 패널토론을 가진 후 인턴십, 신입사원, 경력사원 등을 뽑는 채용설명회 진행됐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는 1~10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참석자들은 채용시기도 상시 또는 2년에 한번으로 정해져있는 등

다양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경우, 미리 서류심사를 거친 27명의 구직자들과 인터뷰를 가졌고, 유럽부흥개발은행(12명)과 국제통화기금(4명) 등도 인터뷰를 통해 인재 확보에 나섰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원활한 영어구사 능력과 석박사 이상의 학위, 최소한 2~3년 이상의 관련 실무경험 등을 두루 갖춰야 한다. 전 세계에서 수만 명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은 그만큼 치열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면접기회가 주어진 이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30대 중반 직장인들이 많았다”고 암시하였다. 이들이 취업에 성공할 경우 대략 8~10만 달러의 연봉을 받게 된다.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는 한국인의 비율은 전체 정원의 0.7%밖에 되지 않는다. 지원금 등을 기준으로 각 국제기구에 근무할 수 있는 한국인 상한은 2% 정도로 우리의 몫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채용절차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국제기구로의 진출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기구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워낙 적은 데다 국가고시처럼 정형화된 시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들 말한다. 대표적인 국제기구 취업방법으로는 JPO시험, NCRE, YPP, 공식 응모 등이 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초급전문가인 JPO(Junior Professional Officer)시험에

도전해볼 만하다. 이는 외교통상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정부가 파견비용을 부담한다. 선발된 JPO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파견 국제기구를 결정하며, 최대 2년의 근무기간이 끝나면 정식 직원으로 채용될 확률이 높다.

외교통상부는 2009년 JPO선발시험 최종합격자 5명 및 예비후보자 5명을 선정하여, 2009년 6월 16일(화) 발표했다. 합격자 중 5명은 금년 중 국제기구에 파견되어 근무한다. 정부는 1996년부터 2008년까지 총 63명의 JPO를 선발하여 그간 UNDP, UNICEF,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환경계획(UNEP) 등 21개 국제기구에 파견하였으며, 파견기간이 만료된 JPO 54명 중 44명이 국제기구에 진출하였다.

NCRE(National Competitive Recruitment Examination)는 유엔분담금에 비해 유엔 사무국 진출인원이 적은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직원채용시험이다. 유엔 사무국 각 부서의 인력수요에 따라 시험시기와 분야가 유동적으로 정해진다. 합격하면 인재풀에 등록되어 6개월에서 2년 정도 대기하는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 인터뷰를 거쳐 채용이

결정된다.

한편, YPP(Young Professional Program)는 국제기구 진출자가 적은 회원국 국민을 정부추천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이며, 현재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전문성과 경력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유엔 채용사이트를 통해 해당부서 공석에 바로 응모할 수 있다.

Ⅲ. 맺음말

한국인들의 국제기구 진출은 그들 개인의 영예를 떠나, 한국이 글로벌 국가로서 국격과 이미지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 이러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발언권도 강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2006년 반기문 전 장관이 8대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한국인의 국제기구 진출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지적대로 한국은 아직까지 과소진출국이다. 세계 13위권인 국가경제 규모에 맞게 국제외교무대에서 한국인들의 역할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외교**

註

1) 張杰, 王虹, 2003, “明初朱元璋經營鐵嶺以北元朝舊疆始末兼論明餘高麗的界務交涉” 중국사회과학출판사, 이영옥 옮김. 132-133쪽 <중국의 동북변강연구>(2004 동북아 역사재단)

2) 조선일보, 2009. 11. 3